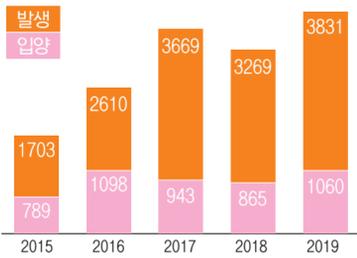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 반려동물 증가한 만큼 유기동물도 증가 ‘불편한 진실’

광주 유기동물 발생·입양 현황 (단위:두)



## 〈2〉 유기동물 입양

“저기 동물보호소죠? 우리집에서 키우는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요. 못키우겠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쪽에 좀 맡길 수 있을까요?”  
광주동물보호소에는 하루에도 열번 이상 반려동물을 맡아달라는 전화가 온다. 맡아달라는 것인지 사실상 동물보호소에 반려동물을 버린다는 말이다. 입양 관련 문의 전화가 2~3통 오는데 비하면 5배나 많은 수다.

시대인 지금,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뀐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광주지역 60만 3107가구 중 14만 2936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19만 6000마리 중 개는 14만 1000마리, 고양이 3만 6000마리로 조사됐다. 사육가구당 평균 1.3마리의 개와 1.5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다.

또 광주시에 등록된 동물 수는 ▲2015년 1만 5907마리 ▲2016년 1만 7795마리 ▲2017년 1만

지난 5년간 우리지역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703마리(개 1300마리, 고양이 403마리), ▲2016년 2610마리(개 1666마리, 고양이 917마리), ▲2017년 3669마리(개 1770마리, 고양이 1855마리), ▲2018년 3269마리(개 1780마리, 고양이 1467마리), ▲2019년 3831마리(개 2146마리, 고양이 1629마리)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하락한 후 2019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유기동물들은 현재 광주시 북구 건국동에 위치한 광주동물보호소에 모여있다. 광주동물보호소는 광주 유일의 동물보호소로 현재 광주시가 사단법인 가치보듬(대표 조경)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수백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와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 힘든 정도의 동물 냄새로 뒤덮인 이곳에는 갈곳이 없는 유기동물 약 300여마리가 살고 있다.

작년 한해 이곳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약 3800마리다. 이중 개는 2146마리, 고양이는 217마리.

조경 광주동물보호소 대표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시민들 사이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동물 유기와 분실이 많다”며 “목줄에 인식표도 달아주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거나 목줄도 없이 산책을 다니다가 개를 잃어버리는 사례도 부지기수다”고 말했다.

“유기동물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요. 반려동물 생산, 판매 규제와 시민 교육, 동물보호법 강화와 단속에 따른 처벌 등이 마련돼야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유기동물들은 철장 안에 갇혀있다가 건강문제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죽은 동물들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전문업체를 통해 소각된다. 지난해 자연사, 안락사로 죽은 동물은 각각 1764마리, 269마리로 파악됐다.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 새 주인을 만난 유기견은 740여마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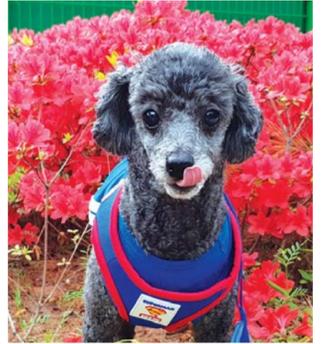
보호되는 유기견들은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백신 접종, 동물 등록 등을 마치고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으로 보내진다. 무분별한 입양에 따른 유기사태를 막기 위해 곧바로 입양하지 않고 견주에게 일정기간 소양교육도 진행한다.

조대표는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업자들을 통해 사고 팔기보다는 이곳에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 토이푸들 ‘비스’



건강 안좋은 상태로 3년 전 입양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함께할 것

11살 된 토이푸들 수컷 ‘비스’예요. 원래 이름은 피스인데 부르기 힘들어서 ‘비스’로 바꿨습니다. 누나인 제 눈에는 어찌나 똑똑해 보이는지 ‘천재’라고도 자주 부릅니다. 비스는 3년전 부산에서 저희집으로 입양 온 아이예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고 추정 나이입니다. 데려올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버려진 아이를 내칠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오빠와 제가 비스를 정말 예뻐해주고 있는데 그게 귀찮은지 자주 문답니다. 이빨을 닦아줄 때마다 물리고, 열마전에는 옷에 낀 털을 빼주려다 세 번이나 물렸어요. 그래도 저만 쳐다보는 비스가 제일 예뻐요. 나이가 많은 탓에 뒷다리 상태가 좋지 않고 백내장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자주 벽에 부딪치기도 해서 마음이 아파드립니다. 앞으로 비스와 함께할 수 있는 날까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해주고 싶어요.

〈김미나·광주시 남구 백운동〉

반려동물의 사진(원본파일)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nsarang\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입양되지 않으면 자연사·안락사... 작년 2033마리

“지난해 740마리 새 주인 찾아... 소양교육 받고 입양”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예전에는 가까이 두고 귀여워 한다는 뜻의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날에는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펫팸족(pet+family族)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반려동물 1000만

9684마리 ▲2018년 2만 3624마리 ▲2019년 4만 4570마리로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의 꾸준한 증가 이면에는 유기동물 증가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동물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유기동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동물보호소(광주시 북구 건국동)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약 300여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살고 있다. 사진은 광주동물보호소 견사의 개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